

코로나 시대, 활동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활동적인 도시

구성원들의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연료에 의존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는 걷거나 자전거 등 활동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는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을 하며, 개인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러한 생활방식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도시. 이러한 ‘활동적인 도시(active cities)’를 추구하는 것은 도시 건강의 주요 주제이고,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도시 생활공간의 구성·배치·활용·관리는 도시 건강의 중요한 과제이자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활동적인 도시에 관한 논의는 활동성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구조와 이용을 검토·개선하고, 도시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며, 공간을 만들어 내거나 공유하고, 서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공간이나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해서 신체활동 동선과 양을 유발하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집중되었다.

활동적인 도시의 세부 내용 중에서 걷기를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작년까지 시민들과 면담조사를 하였을 때는 ▲미세먼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의 혼잡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근린의 공공시설과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미충족 ▲보차혼용도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이

륜차-자동차 간의 갈등 ▲온라인 서비스화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충알 배송’ 같은 도시의 편의가 걷고 움직이는 기회를 줄이는지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방과 후 운동장 또는 영업 외 시간에 쇼핑몰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주말에는 거의 통행이 없는 도심지역 사무용 건물 주변의 도로를 주말 한정 도심광장 형식으로 변용해서 사람들이 걷고,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다수 소개되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을 추진할 때 제도적·공간적·사회문화적 그리고 건강 관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또 전략의 효과를 ‘건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효율성’, ‘정책의 인지도와 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도시 생활공간의 공유

그리고 보니 예년 같으면 봄부터 서울의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에서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의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때문에 도시 생활공간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매일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기본 시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조심과 불안 인식하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속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제한된 실내공간을 모르는 누군가와 공유할 때, 혼잡한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에 종종 불편함과 불쾌함 그리고 불안이 따라오곤 하였다. 그러나 밀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의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는 제한된 실내공간을 불특정 타인과 밀집도 높게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피하기 어려운 필수 요소라는 점이 가져오는 불안과 거리낌이란 전에 비해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

그동안은 도심 근린에 일터와 쉼터, 생활편의 시설, 흥미로운 상점이나 문화거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한정된 도시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유도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는 사람들의 밀집과 접촉을 차단해야 할 공간이 되었다.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호흡하고 기구를 공유하는 실내 운동

시설, 시민들이 모임과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희공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도시공간 자원과 경험의 공유 성격이 컸지만, 이들 시설에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안전 안내 메시지를 연일 받는 지금은 공간 공유를 감염 예방과 차단이라는 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대인 접촉을 하지 않는 자전거와 킥보드, 그 외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활동적인 도시를 지지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 이용의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차량 이용을 선택한 사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내공간 공유를 통한 활동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외출과 모임 자제가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출퇴근과 통학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걷기가 줄어든 경험은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을 듯하다.

필수적인 이동을 위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났다면 우리는 활동적 이동에서 전보다 멀어져 버린 것이고, 이는 건강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활동이 제한되어 살이 확 찼다는 뜻의 신조어 ‘확찐자’가 유행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생겨나는 2020년의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유념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 공간의 확보

앞서 기술한 대로 공간 공유를 통해서 활동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동안 활동적인 도시를 추진하는 주요 개념이자 전략에 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실내공간의 공유에 대해 위험과 불안의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다. 한편 근무, 학습, 쇼핑, 여가, 사회적 교류 등 일상의 상당 부분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활동 방식을 온라인 도구와 함께 실내에서 대체하는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운동 시설에서 하던 활동을 모두 집에 머물며 실내에서 한다는 뜻이 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집 안에서 확보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학에서는 2020년 1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등교를 자제하도록 하는 대신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등교 자제 방침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카페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와 장소로 이동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거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개인 공간이 거처에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수업에 따라서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과제 발표와 소그룹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처의 실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개인 공간이 없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인 1실의 기숙사나 기타 공유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개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집에 연결이 안정되고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카페로, 혹은 학교 연구실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종일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다인 가족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공유사무실·모임공간·카페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의 제한을 받으며 부대낌이 있었을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기존의 활동 대체 중에 많이 회자되는 ‘홈트’, 즉 인터넷 동영상을 따라 하며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도 공간 확보의 사안이다. 작은 원룸이나 기숙사처럼 공간의 한계가 있는 거주 형태나 소음·진동 등 동반되는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주택 구조가 장애 요인으로 우선 떠오른다. 그리고 아마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의 주택 공간을 어떤 기능의 공간으로 기대하고 평가하는지로 연결될 것이다.

앞으로 재택근무·화상회의·홈트레이닝과 온라인 수업 등이 더 보편화된다고 할 때, 우리의 주거공간은 가구 구성원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과 공간 구조 그리고 소재와 기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필요 적절한 공간 확보가, 다인 가구는 구성원마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공간 기능이 필요하다.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 실내공간의 확보와 기능에 연결되는 또 한 가지 사안은 환기이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

로 손 씻기와 환기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택 구조, 특히 고층 공동주택에서는 실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 외출 모임 자제 권고가 계속되는 중에 타인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바깥 공기를 쉴 방법도 제한적이다.

조그맣게라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마당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타인 접촉 없이 바깥 공기를 쐬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시민의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의 아파트들은 실외 발코니가 있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그 공간이 실내로 흡수·개조되어 있다. 요새는 집을 구할 때 조망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의 경험과 함께 실내 환기 용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나만의 외부 공간을 편리하게 가질 수 있고 환기에도 역할을 하는 발코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지 모르겠다.

외부 공간으로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다시 활동적인 도시 생활의 주제로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실내 운동시설의 이용이 여의치 않고, 사람의 밀집이 덜한 한적한 야외 활동을 한다 해도 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빈도를 충족할 만큼 자주 하기는 쉽지 않으면서, 녹지나 오픈스페이스까지 가는 이동수단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도가 두드러지는 것이 도시의 공원이다. 최근에는 ‘팍(park)세권’이라 불리면서 주거지나 근무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있는지가 생활하기 좋은 선호 지역의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이나 하천 주변의 걷기 길, 둘레길, 숲길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이 도시공간에서의 생활 면면마다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듯이, 이제 감염병 대유행을 겪은 도시민에게는 공원은 좋은 편의시설 이상의 의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중한, 꼭 필요한 도시의 자원이 되었다. 도시공원의 조성·유지·관리, 도시 생활권과 자연녹지로의 연결이나 접근성을 형평성에 입각해서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중요해진 도시 건강의 과제인 것이다. 대규모보다도 접근성과 가용성이 좋은 도시공원을 여기저기에 확보하기 위한 공간 만들기(space-making)의 의제화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물류의 이동 문제를 대

정의로운 가치

면하는 도시에서는 도시농업도 연동해서 생각해 볼 사안일 것 같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한 도시가 공간과 건강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논의 중 일부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실행한 많은 것들이 변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활동적인 도시를 위한 공간의 공유나 압축과 다목적 활용 같은 기존의 전략이 도전을 받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교롭게도 2020년은 도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서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다음 10년을 계획하는 이정표적인 시점이다. 보건 부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마무리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으로 이행하게 된다. 도시의 안정과 건강과 지속을 위한 기획의 시점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여건인 사회적 건강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들을 다루는 보건, 건축, 도시계획과 설계, 도시정책과 행정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언제 또 어떤 감염병 위기를 겪게 될지, 전파 양상이나 속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 혹은 도시가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맞아 그때까지의 전략이 다시 도전받는다면, 대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략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개발해야 하더라도, 바탕에 그 사회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기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가치의 핵심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고 생각된다.

건강위기·재난의 충격과 회복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건강형평성(health equity) 제고를 위한 노력은 사회정의와 지속가능성을 가치 토대로 해서 건강지향적인 도시공간의 선택권, 보장성, 접근성, 가용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커뮤니티의 활동은 현재 위축된 면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인 의제 형성이나 여론의 공감대는 온라인의 참여와 실행력이 컸던 선행경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와 형평성 기반의 건강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위한 노력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과 역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확산 방안에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